

SBS 사우회 포을 깨우다

봄철 야유회, 神들의 정원 동구릉 나들이

‘화살이 과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활 쏘는 이가 과녁으로 화살을 보내는 것이다.’ 정해 놓은 과녁에 맞을 때 까지 화살을 쏘았다는 태조 이성계. 조선왕조 태평성대를 여망하며 사후세계의 과녁을 미리 점지해놓은 것일까? 동구릉(東九陵)이 500년 조선왕조의 맥을 계승한 터가 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보면 태조의 화살은 명당을 빗나가지 않은 것 같다. 사우회 회원들을 반긴 동구릉의 5월은 초록빛이 싱그럽게 짙어가는 ‘신들의 정원’이었다. SBS 사우회는 봄철 야유회를 5월 25일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서 가졌다. 이날 참석한 45명의 회원들은 태조를 비롯해 9명의 왕과 왕후가 잠든 조선왕조 동구릉의 문화적 가치와 명당자리 동구릉의 풍수지리에 얽힌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왕릉을 산책했다. ‘가만 있자...여기가 중학교때 소풍 온곳 같은데’ ‘맞아져 흥살문 앞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생



각나네’ ‘그 때 보자기에 싸운 김밥과 사이다 지금 먹으면 그 맛이 날까?’ 학창 시절, 이곳에 소풍 왔던 회원들 가운데는 희미한 추억의 퍼즐 조각을 찾아 나서기 했다. 다시 추억을 남길 단체 사진을 찍은 후 인근 식당에서 가진 점심시간은 시종일관 웃음꽃이 시들지 않았다. 사우회 임형두 회장은 매년 야유회를 통해 사우회가 더 강하게 결속되고 회원간의 유대감이 더 끈끈해지는 것 같다고 말하고 내년 야유회는 전 회원들이 참가 할 수 있도록 색다르고 참신한 이벤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근(전 SBS

감사) 사우는 오랜만에 회원들과 함께한 자리가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라며 오늘 충전받은 활력으로 더욱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의미의 ‘구구팔팔 일이삼사!’ 건배사로 잔을 부딪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가 끝난 후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다시마를 기념품으로 나눠줘 회원들로 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다.

운영위원회 田園別曲 회의

사우회 운영위원회 제35차 회의가 4월 22일, 경기도 연천에서 열렸다. 이 같이 회의가 외부에서 열린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연천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 박충 위원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사우회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한 윤충의 사우의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가 전달 되었으며 회의가 끝난 후 정성껏 마련된 특별한 오찬으로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박충 사우 부부가 준비한 막걸리 한병, 유정란 달걀 한 꾸러미씩을 선물로 받았으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전원별곡 부부의 정감어린 정성에 무한 감동을 받고 돌아왔다.

여성동호회 클래식 포럼

수다 잠재운 교향악 향연의 시간 가져



사우회 여성동호회 포럼이 6월21일 압구정동 <세실 아트홀>에서 열렸다. 여성동호회가 탄생되고 첫 공식 행사로 열린 ‘클래식 포럼’은 동호회 변순복회장이 해설하는 음악 감상회 형식으로 진행 되었다. 이날 참석한 15명의 회원들은 42세에 요절한 영국 첼리스트 <재클린 뉘프레>의 ‘엘가 첼로 협주곡’ 실황 DVD 감상을 비롯해 기악과 성악 등 다채로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진지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변순복회장은 이번 첫 포럼이 매마른 감성에 단비를 뿌린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 모임을 정제화해 회원들의 친교를 넓혀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구동호회 발족됐다

9번째 동호회, 이종수 사우가 회장 맡아

SBS 사우회 당구동호회가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발족됐다. 음악감상동호회에 이어 새로 탄생함에 따라 동호회는 9개로 늘어나게 됐으며 회원들의 취미활동 영역이 한층 다양해졌다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당구 매니아로 알려진 이종수 사우가 회장을, 이은범 사우가 총무를 맡아 초록빛 당구대 세상을 열어가게 됐다. 이종수 동호회장은 “당구가 노년기 정신 건강 증진에 최고이니 만큼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하고 있다. 당구동호회는 첫 번째 행사로 6월 24일, 여의도 사우회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태양빌딩 3층에서 친선시합을 가졌다.



“우리 사무실이 달라졌어요”

여의도 태양빌딩에 자리한 SBS 사우회 사무실이 새로 단장됐다. 업무공간 재배치를 통해 마련된 휴게실에는 대형 TV와 음악 감상용 오디오가 설치됐으며 회원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오락기기도 비치해 놓았다. 사우회는 회원들의 휴게실 이용 추이를 보면서 아늑한 쉼터로 자리잡을 수 있는 추가 운용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새 사무처장에 박재규 사우 선임

SBS사우회 새 사무처장으로 박재규 회원이 선임됐다. 전임 윤충의 사무처장의 뒤를 이어 새로 사우회 운영을 맡게 된 박재규 사무처장은 “사우회 살림은 봉사정신이 강하고 부지런한 일꾼이 맡아야 하는데 미흡한 사람이 잘할 수 있을지 어깨가 무겁다”며 사우회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 사우회가 인생제2막 활력 충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신입회원 (4월 ~ 6월 가입자)

김기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010-3772-6055
석정수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010-8573-0784
이한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010-5324-9911

중신회비 내신 회원 (각 20만원)

김기배, 석정수, 오종록, 이근용, 이한수

연회비 내신 회원 (각 2만원 4월 ~ 6월)

김광섭, 김임수, 이수영, 임상길, 천영일

社友 인터뷰 / CJB 청주방송 사장 이궁 사우



합동통신에서 기자생활의 첫 발을 내디딘 이후, 동아방송과 KBS를 거쳐 SBS 국제부장, 사회부장, 정치부장, 보도제작국장, 논설실장, 나이트라인 앵커 등을 역임했던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궁 사우. 화려한 기자생활을 마치고 작년 가을 정년퇴직했다. 재직시절 서울시 디자인 자문위원과 관세청 관세행정 선진화 자문위원, 방송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 등의 경력을 쌓았고 퇴직 후엔 LED칩 생산회사 사장으로도 발탁됐다. 송충이는 술을 먹어야 한다고 했단가, 그가 지난 3월 CJB 청주방송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궁금한 게 많다.

청주방송 대표이사로 취임하신지 3개월이 지나고 있군요.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요? 먼저 SBS 사우회원들에게 지면으로 인사 하시지요.

“4계절이 2계절로 바뀔걸까요. 봄인가 싶더니 여름입니다. 퇴사한지 벌써 8개월입니다. SBS에선 고참이어서 물러났는데 사우회에선 제일막내가 됐습니다. 방송업무야 늘상 하던 일이고... ‘국수하던 늙 수제비 못하랴’는 속담으로 답을 대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회원으로 맞아주시는 선배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신명나는 일터가 제가 꿈꾸는 직장입니다

청주방송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사직동에 있던데요.

“말 그대로 맑고 푸른방송입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도시 청주에 본사를 둔 중부권 제1방송이지요. 가시청 인구가 3백만명 쯤 됩니다. 충청북도가 역7자 모양으로 굽은 고구마 모양을 하고 있어 가시청 권역이 넓습니다. 라디오의 경우 북으로는 동탄 신도시, 남으로는 전주, 대구에서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전에 <시사저널>에서 지방자치제 10년 특별기획 ‘누가 지역을 움직이는가?’라는 조사에서 CJB청주방송이 54.2%로 지역내 가장 영향력있는 매체로 꼽히면서 있습니다. 개국 이래 충북의, 충북에 의한, 충북을 위한 방송을 기치로 내걸고 있으며 매일 아침 자체 생방송 보도-교양프로그램 <출발 모닝와이드 CJB>를 방송하고 있는 등 200명이 채 되지 않는 규모이지만 충북지역 대표방송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궁 사우의 입담과 유머감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요. 청주방송 임직원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인기랄 건 없구요, 곱게 봐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소통과 신명’을 강조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경영자이지만 형이나 선배, 오빠와 같은 존재로서 나름의 ‘역할’을 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너와 직원간의 가교역도 자임하고 있습니다. 선의(good will)가 넘치는 신명나는 직장, 바로 제가 꿈꾸고 구현하려는 CJB의 모습입니다.”

같은 충청권입니다. 대전방송 대표이사인 이갑우 사우와는 지역민방 모임에서 자주 만나겠군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시지요?

“자주는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정기 모임에서 만납니다. 지역적으로 가깝고 그래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백만원군 같은 존재이지요. 평소 SBS에 근무할때도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도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 항상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불완전 폭탄 한방 때러러 ‘유성’으로 가볼까 합니다”.

많은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여기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한 나이인데, 특별한 취미생활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취미는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푸쉬(Push)’입니다. 3각의 텐션이 주는 손맛 쓰리고 피박의 잔혹사를 연출해 본 것도 10년은 더된 것 같습니다. 근래 취미생활을 전혀 못했다는 얘깁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가칭 ‘한국 푸쉬 연구소’를 만들어 동호인들과 ‘고락(苦樂-Go樂)’을 함께 나눠 볼 생각입니다. 사우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있는 분들은 저와 계속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여가활동은 SBS에 근무할 때보다 다소 실력이 향상됐다는 겁니다. 마의 90벽을 깨고 8자를 그리면서 이젠 ‘상수 소리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 항상 보고 싶은 사우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구요, 청주 오시면 꼭 연락주세요. 잃을 ‘편’ 가져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하하하”

인터뷰 정리/ 이시권 편집장

음악감상동호회 탐방기

귀를 행구하고 영혼이 호사한 ‘두 시간의 행복’

글/ 박건삼(사우회 운영위원 · 프리랜서PD)

지난 5월 21일, 늦은 봄비가 오락가락하는 3호선 종점 대화역 오전 10시 20분, 5번 출구로 나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그날은 SBS사우회 음악감상동호회가 창립하고 세 번째 모임이 있는 날이다. 이 날은 특별히 강동하 총무가 회원들을 직접 집으로 초대한 뜻 깊은 모임이었다. 마을버스를 타고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264번지 강동하 사우 맥을 방문했다. 초록색 잔디가 곱게 깔린 그림엽서 같은 아름다운 전원주택은 감탄이 절로 나왔다. 특히 소나무를 비롯한 각종 정원수며, 온갖 산채를 비롯하여 야생화가 만발한 잘 가꾸진 정원은 강동하 사우의 열정과 안주

인 임순덕 여사의 정성과 고운마음씨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1997년, 이곳에 터를 마련해 비둘기 집을 짓고 지금까지 15년째 살고 있다. 클래식에서 상송, 팝, 재즈, 가곡, 가요 등 모든 장르에 이르는 3천여 장의 CD가 빼곡히 정돈된 응접실엔 5천여만 원을 투자한 오디오 시스템이 우리의 눈과 귀를 황홀케 했다. 열한 시가 좀 넘어 시작된 음악감상회는 임 여사가 마련한 맛깔스런 안주를 곁들인 포도주를 음미하며 귀와 입과 도회에서 찌들은 영혼이 호사를 즐긴 밤나절 이었다. 누군가 임 여사에게 물었다. 너무 적적하여 심심하지 않느냐고 “하루 종일 흥남난하다 보면 어떻게 시간

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정원 가꾸고 돌이서 유기농야채와 산나물 등먹거리 가꾸는 흠일 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노후를 자연과 더불어 흠을 닦아가는 부부, 그들에겐 순박한 흠냄새가 났다. ‘사람의 향기가 이런 것’ 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임형두 사우회장, 최경수 동호회 회장을 비롯하여 이해성, 서상정, 변장부, 이관형, 박희재, 박재규, 윤충의, 오창근, 신영애, 김정민 사우 그리고 정승화 사우회 부회장은 부인을 모셔와 한결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재즈 보컬 나윤선의 농익은 목소리로 부르는 ‘아름다운 사람’을 시작으로 완벽한 음향 시스템으로 감상한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은 우리 모두를 압도했다. 신들린 귀재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제1번 작품 6, 제 3악장은 이해성 사우의 명 해설을 곁들인 감상으로 그날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마지막으로 두 곡의 음반을 더 감상했다. 비록 북각판이긴 하지만 이해성 사우가



가져온 희귀 음반인 윤심덕의 ‘사의 찬미’와 ‘Gloomy Sunday’를 노래에 얽힌 슬픈 사연과 함께 들었다. 음악 감상을 하며 마신 적포도주의 취기가 아련하게 가슴에서 서서히 밀려오고, 어디선가 신비스런 비안개 속에서 먼 북소리가 들려왔다. 음악에 흠뻑 젖은 우리는 더 이상 속인이 아니었다. 아름답고 몽환적인 하루였다. 처음 들어섰을 때 눈으로 보았던 그 집, 나올 땀 강동하 사우 내외분을 가슴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 아쉬움으로 돌아섰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게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나는 혼자종일 거렸다.

사우 동정



강인식 (KT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 상무) 사우는 3월말, 자회사인 영화투자배급사 <싸이더스 FNH> (www.sidusfnh.co.kr)의 사장에 취임했다.



송도균 (사우회 고문) 사우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기를 마치고 4월 11일 법무법인 태평양 (www.bkl.co.kr)의 고문직을 맡았다.



엄광석 (사우회 운영이사) 사우는 4월 22일, 제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www.kocscor.kr) 위원에 선임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임기는 3년이다.



이영돈 (KBS 국장급) 사우는 동아일보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의 제작본부장을 겸한 방송담당 상무로 자리를 옮겼다.



최홍철 사우는 한국정보통신진흥원의 해외전문가 파견 프로그램에 따라 몽골 TV9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5월 3일, 몽골의 <세계 언론 자유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상인 <GOLDEN PEN> 메달을 수상했다.

신영균

(사우회 명예고문) 사우는 6월 21일, 서강대학교로부터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수여내용은, 영화인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후학들을 위한 사회 환원에도 기여한 바를 인정받은 것으로 수여식은 서강대 '성이나시오펠'에서 거행되었다.



경조 사항

- 부음
 - 4월 30일 우원길 모친상
 - 5월 12일 이근용 부친상
 - 5월 20일 염호섭 방모상
- 결혼
 - 4월 16일 김익성 장녀
 - 5월 14일 이찬휘 차녀
 - 6월 11일 최혜옥 본인

이 사우가 사는 법 / 빅타이 맨 농부 이재호 사우

구제역을 이겨내어 축산왕 이루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막연한 생각중 하나가 '시골에 살고 싶다', 혹은 은퇴하면 '조용히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실제로 휴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냉혹한 현실인지를 모른 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귀농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제 고향은 경기도 이천 하고도 오로지 휴에만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도권 오지입니다. 유년시절을 이곳에서 자라며 자연과 휴에 대한 자연스레 형성된 생각과 가치, 이후 도시교육과 생활 속에서도 마치 본능처럼 점점 커져가는 휴에 대한 집착이 아직 은퇴한 나이가 아님에도 몸과 마음이 주체적으로 행동 하면서 휴과 병행해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SBS에 몸담고 1~2년 지난 1995년, 서울에서 직장인으로 첫발을 내딛을 때부터

그 본능적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고향에서 번식한우 20마리로 '협동농장'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이렇게 '빅타이 맨 농부'로 15년 동안 최고품질의 한우를 생산



해 내어 200 두 규모의 축사로 발전시키면서 팍 흘러 일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 '구제역'이란

뜻하지 않은 상황은 짧지 않은 15년의 투자와 시간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번 일은 대다수 축산인들에게 가슴이 먹먹하고 전율나는 청천벽력이었을 겁니다.

녹슬어 가는 시설, 썩어가는 중장비들, 그리고 금융권의 압박 등 앞친데 덮친 날벼락으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농장 가운데 매몰한 소에서 나올까 우려되는 짐출수의 위험과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흩어졌던



협동농장 식구들의 일시 피난처로 지금은 경기도 가평 한자락에 농원형 펜션에 한시적 거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축사가 터영 비었다고 좌절과 원망만으로

살아가기엔 아직 젊습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외조카는 비록 촌에서 도시의 교육은 받고 있지 못하지만 이 아이의 천진한 웃음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예언의 웃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 아이처럼 늘 맑게 웃으며 지낼 수 있도록... 또한 어린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지금의 이런 웃음을 잃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소망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텅 빈 축사를 청소하고 다시 농기계를 잡으며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사우들과는 너무도 다르게 사는 생활을 소개하기에는 부끄럽고 송구하지만 휴과 농촌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뉘두리를 들어 보시라고 이 글을 씁니다. 선배님들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이재호 사우는 현재 뉴스채널 mbn 미디어전략부 전략2팀장으로 근무하며 축산 농장을 경영하는 특별한 농촌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편집자-

초대 사무처장을 마치고 / 5년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윤충의 사우

선택된 봉사자 아니면 많이 모자라는 바보였어요



하지가 지났지만 낮이 길어져서인지 요즘은 하루가 지루함을 느끼곤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여의도를 오가기 5년 가까이 되었으나 무엇을 했는지 목적과 의식이 벌써 아물거립니다.

2006년 9월 5일, SBS 사우회 창립 당시만 해도 의욕이 왕성해서 모든 것에 자신감을 갖고 사무처 일에 매진할 수 있었지요. 당시 140여명의 회원으로 사우회가 창립 되었지만 퇴직자에 비해 가입 회원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업무 시작후 2년간은 사우찾기 전화통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여명 회원을 찾아 가입시키는 열정도 있었고 이제

는 회원수가 400명을 넘어 운영기간이 짧은 짧은 사우회지만 위상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고 안정됐다는 생각입니다.

아쉬운 점은 사우회 사무실이 너무 조용하다는 겁니다. '사우 초대날'도 정해 봤지만 효과가 없어 맥이 빠진적도 있었으나 사우 여러분이 모두가 바빠서 방문하지 못한다면 어찌할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제 후임자가 멋진 해결사가 되어 활기찬 사우회 모임장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어느 모임 보다도 협조와 단합이 잘되고 있는 SBS 사우회에서 더러는 섭섭한 얘기로 마음 상한 일도

없다 할 수 없지만, 긴 세월 큰 불화없이 지냈으니 나는 선택된 봉사자 아니면 많이 모자라는 바보가 틀림없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회사 재직 때는 얼굴도 잘 몰랐던 사우의 문상과 결혼식 축하 인사 다니는 일이 사무처장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쑥스럽기도 했으나 이제와 생각하니 직무를 떠나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참으로 좋은 봉사의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이 우선이니 앞으로 수익사업 전개를 통해 복리혜택을 더 많이 받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무처장 직무를 수행한 수년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대과없이 기분 좋게 자리를 떠나 수 있었던 데에는 임형두 회장님의 큰 배려와 운영위원장님들, 감사님, 그리고 모든 사우님들의 협조와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리며 모임 때마다 변함없이 건강하게 뵙기를 바랍니다.

본사소식

SBS 서울디지털 포럼 2011 성황리 개최

‘초연결사회’ 주제... 주요인사 2천여 명 방문

5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사흘간 쉐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SBS 주최 제 8회 ‘서울디지털 포럼 2011’은 초(超)연결사회-함께하는 미래를 향하여’를 주제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자인 래리 킹, 니콜라스 카, 글로리아 스타이넴을 비롯해 손학규 민주당 대표, 최종경 지식경제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송영

길 인천시장 등 국내외 주요인사 2천여 명이 다녀갔다. 서울디지털포럼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민 SBS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세계적인 석학들의 지혜를 연결해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미디어 그룹 SBS가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포럼 집행위원장인 SBS 우원길 사장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으로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됐고, 정보나 프로그램을 제3의 공간에 저장하고 사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여러 사람의 집단 지성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

다. 서울디지털 포럼은 SBS가 2004년부터 개최해온 비영리 목적의 국제 포럼으로 디



지털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혁신을 이뤄낼 영감을 공유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져 디지털 시대의 지식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찬휘 사우의 건강다이제스트

고향이 그리워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턱 깎고, 코 높이고, 가슴 키우고, 미간과 입술에 지방을 채우고, 눈썹에 문신을 하기도 합니다. 예뻐지려는 노력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용감하다는 것, 또 하나는 ‘오죽했으면...’ 이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 재미있는 성형 수술이 있습니다. 코와 입술에 깊게 패인 팔자 주름을 없애는 수술인데요, 종전에는 필러라는 이물질들을 넣어 없앴습니다. 물론 우리 세포와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이물질에 대한 면역 반응은 거의 없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중력에 의해 밑으로 흘러내려 윗입술이 두툼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필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다시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필러를 제거하고 다시 넣어 주는 과정에서 얼굴이 이상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방법이 자신의 지방을 필러 대신 넣어주는 기술입니다. 자신의 뱃살이나 허벅지의



지방을 꺼내 깊게 패인 팔자주름 밑에 넣어주면 자신의 지방세포가 부작용도 전혀 없는데다가 주름이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적어도 5년은 젊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방을 넣어 줬더니 1개월이 지나자 지방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고 말았고 팔자 주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지방줄기세포 주입술입니다. 뱃살이나 허벅지에서 지방을 추출한 뒤 원심분리기로 돌리면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세포 가운데 3분의 2는 팔자 주름에 주사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냉동 보관합니다. 한 달쯤 지난 뒤 주입했던 지방 줄기세포는 3분의 1가량만 세포로 스며들고 나머지는 그대로 생각해 팔자주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냉동 보관했던 나머지 지방 줄기세포를 한 번 더 주입하게 되면 팔자 주름이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 속눈썹이나 음모가 거의 없을 경우 뒷머리에서 머리털을 뿌리째 뽑아 이식하게 되고 이때 이식한 털은 자신이 살았던 특성을 그대로 가진 채 옮겨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식한 속눈썹과 음모



가 뒷머리처럼 계속 자라게 돼 매달 자르고 다듬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뱃살이나 허벅지에서 이식한 지방 줄기세포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뱃살이나 허벅지가 살이 찌 경우 같이 살이 찌면서 팔자 주름을 성형한 곳이 이제는 반대로 두툼해 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향이 그리운’ 거죠. 그러니까 팔자 주름을 없애려면 지방줄기세포 성형을 하는 게 종긴한데 반드시 살이 찌지 말아야 한다는 굳은 결심이 섰때 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주의 '너섬' 속 '나섬이'

여름나기 지혜

마음으로 더위 이겨내면 몸도 시원 - 채근담
한 여름밤 숨겨논 애인을 사랑해라 - 죽부인
바람 피다 걸린 놈 없다. 바람 피워라 - 선풍기

赤, 白球 동호회 발족

전국에 SBS 당구장 간판 단 업소 문 닫아라
진짜 상호 등록된 'SBS 당구동호회' 문 연다
(속보) 짜장면 시키신 분, 회원 가입 불가

휴게실의 유혹

여자의 변신만 무죄나 휴게실의 변신도 무죄다
동양화 서양화 감상 무제한
단, 차 마시기...피로풀기...셀프서비스 ㅋㅋ

SBS 사우회보는 SBS 사우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입니다. SBS 사우회보 발간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 해주신 SBS 뉴스텍, SBS 아트텍, SBS콘텐츠허브, SBS 미디어넷, SBS 인터넷서널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콘텐츠 제작의 중심

SBS 아트텍

